



[기조 발제] 영상섭의 중도적 민족노선
– 50주기를 기념하여 단편 「윤전기」를 중심으로

저자 (Authors)	염무웅
출처 (Source)	국제어문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 2013.6, 31-40 (10 pages)
발행처 (Publisher)	국제어문학회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Language And Literature
URL	http://www.dbpia.co.kr/Article/NODE02263860
APA Style	염무웅 (2013). [기조 발제] 영상섭의 중도적 민족노선. 국제어문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31-40.
이용정보 (Accessed)	고려대학교 163.152.3.*** 2016/12/14 15:30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염상섭의 중도적 민족노선 — 50주기를 기념하여 단편 「윤전기」를 중심으로

염 무 웅 (영남대 명예교수)

(1) 다들 알고 있듯이 염상섭은 남긴 작품의 분량이 워낙 방대해서, 소수의 연구자 아니면 통독할 엄두를 내지 못한다. 그동안 염상섭 논의가 몇몇 대표작에 집중되거나 특정 시기에 국한되어온 것은 이해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그의 문학에 접근하기 쉽지 않은 것이 단순히 분량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일반 독자들에게만이 아니라 전문연구자들에게도 염상섭의 문학세계는 다지기 편치 않은 자갈밭이다. 이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염상섭의 문학 자체 안에 독자의 편안한 접근을 방해하는 요인이 내재해 있다는 것이 내 생각의 바탕에 깔려 있다.

유감스럽게 나 자신도 염상섭의 많은 작품 가운데 일부밖에 읽지 못한 부실한 독자의 한 사람이다. 그의 문학을 논하는 글도 조금밖에 쓰지 않았다. 『만세전』(1924)의 성과를 염두에 두면서 장편소설 『삼대』(1931)에 다루어진 시대적 전환의 의미를 등장인물의 갈등구조를 통해 분석하려고 한 평론이 「식민지적 변모와 그 한계」인데, 이 글을 계간 『한국문학』 제3호에 발표한 것이 1966년이니, 실로 오래전이다.(이 계간지는 출판사 현암사가 의욕적으로 기획한 문예지였으나 겨우 1년을 버티고 사라졌다.) 후일 「식민지적 근대인」이란 제목으로 고쳐서 평론집 『민중시대의 문학』(창작과비평사 1979)에 실었다.

주지하듯이 『삼대』는 국민적 교양서라 할 만큼 많이 읽힐뿐더러 평론가들에게도 집중적인 논의의 대상이 되어온 작품인데, 내가 글을 쓸 무렵은 그런 붐이 일기 훨씬 전이었다. 당시 나는 식민지사관의 극복문제에 관심을 갖고 독서를 시작하면서, 근대적 민족문학의 수립이라는 역사적 과제가 식민지시대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변모·굴절되었는지 탐색하고 있었다. 『삼대』는 그런 문제를 점검하기에 아주 적합한 텍스트라고 여겨졌다. 다들 알다시피 ‘식민지 근대화론’은 오늘날도 매우 논쟁적인 화두로 되어 있는데, 당시 내가 생각한 ‘식민지적 근대’는 오늘의 ‘식민지 근대화론’과 반대로 일제의 강압적 식민통치에 의해 부분적으로는 봉건적 퇴행조차 수반하는, 말하자면 근대화의 ‘왜곡’을 강조하는 개념이었다. 내가 보기에 『삼대』는 구한말부터 식민지초기까지의 시기 즉 근대적 전환기의 왜곡된 인간적 전형들을 드물게 사실적으로 묘사한 소설이었다. 다시 읽으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지금도 나는 그런 판단을 가지고 있다.

유신독재 시대의 한복판에서 맞은 해방 30주년의 의미를 음미하기 위해 쓴 글이 「8·15 직후의 한국문학」(창작과비평 1975 가을)이다. 역시 오래전이다. 이 글에서 나는 채만식의 「논 이야기」(1946)와 「맹순사」(1946), 이태준의 「해방 전후」(1946), 김동인의 「김덕수」(1948), 이선희의 「창」(1946), 황순원의 「황소들」(1946) 「아버지」(1947) 「술 이야기」(1947), 김동리

의 「지연기(紙鸞記)」(1947)와 「혈거부족」(1947), 계몽묵의 「별을 헨다」(1946) 등 여러 단편 소설들을 검토했다. 검토의 주안점은 우리 민중이 일제 식민통치에 의해 어떤 고난을 당했고 8·15를 통해 얻고자 한 것은 무엇이며 8·15가 우리 민중에게 실제로 가져다준 것은 무엇인지 작품에 그려진 바를 따져보는 것이었다. 결과적으로 8·15가 우리 민중의 삶에 가져온 것은 기대에 어긋나는 또 다른 고통일 뿐이라는 것이 다수 작가들의 증언이었고, 그런 점에서 8·15는 미완의 해방이라는 것이 내 결론이었다.

위의 여러 작품들과 함께 다룬 것이 염상섭의 연작단편 「이합(離合)」과 「재회」(1948) 및 「그 초기」(1948)이다. 이 작품들을 통해 나는 염상섭이 분단시대 초기 남북의 정치사회 현실을 어떻게 비판적으로 묘사하고 있는지, 그리고 분단상황에서의 그의 정치적 입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검토하고자 했다. 그 작품들에서 내가 받은 인상은 외세에 의해 분단된 남과 북 어느 쪽에서도 진정한 자기실현의 공간을 발견하지 못하는 '실존적 방황'의 정서가 염상섭 문학의 기반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었고, 그것이 그를 비판적인 -나아가 염세적인- 회의주의자로 만들었다는 것이었다. 염상섭 탄생 100주년을 맞아 간행된 『염상섭 문학의 재인식』(문학과사상 연구회, 깊은샘 1998)에서 이선영·김영민·하정일·김재용·이현식 등 연구자들이 그런 문제를 여러 측면에서 심도 있게 다루었다는 것을 나는 뒤늦게야 접했다. 특히 『사랑과 죄』(1928) 『무화과』(1932) 『효풍』(1948) 등 그때까지 내가 못 읽은 장편소설을 『만세전』 『삼대』 등과의 이념적 연속 속에서 분석한 젊은 연구자들의 논지에서는 배운 바가 많았다.

(2) 염상섭의 문체가 만연체라는 점은 두루 지적된 바이다. 과연 그렇다. 염상섭과 거의 동시에 문단에 등장하여 여러 면에서 대척적인 위치에 있었던 작가 김동인의 문장과 비교해보면 그 점이 더욱 뚜렷하게 부각된다. 알다시피 김동인의 문장은 대체로 단문이어서 짧고 속도감이 있으며, 대상의 특징을 간명하게 포착하는 데 능란하다. 장면의 전환도 빠르고 명쾌하며 인물의 묘사도 예리하고 직접적이다. 김동인의 소설이 그 시대 독자들에게 강한 흡인력을 발휘한 것은 그런 점과 연관된다고 믿어진다.

반면에 염상섭의 문장은 이와 아주 다르다. 그의 길게 늘어진 복문들은 대상을 곧바로 공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위를 끊임없이 맴돌고 망설임으로써, 독자를 소설 속으로 끌고 들어가기보다 바깥으로 밀어내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말해도 좋을 정도이다. 작가의 붓끝은 인물의 행동이건 심리의 추이건 그 결정적 포인트를 단숨에 타격하지 않고, 다만 행동과 심리의 미묘한 변화와 복잡한 국면들을 세밀하게 추적할 뿐이다. 그리하여 대상에 대한 과도한 집착이 도리어 대상의 통일적 영향을 파괴한다는 미학적 딜레마를 결과하는 것이다.

동지 추위에 영하 17도 3부 타던 것이 이틀지간에 내일이 크리스마스라는데 오늘은 아침결부터 고드름이 녹아내리더니 한나절 절뚝거리던 진고개 어구는 석양판이 되니까 벌써 먼지가 날릴 듯이 뽕뽕뽕하고 날씨는 여전히 푸근하다.

이것은 장편소설 『효풍』의 첫 문장이다. “엣그제까지 심하게 동지 추위를 하더니, 크리스마스

를 하루 앞둔 오늘은 날씨가 확 풀렸다”는 내용인데, 위에 보이는 바와 같이 지나치게 상세한 묘사가 도리어 묘사의 목표를 몽롱하게 만드는 역효과를 내고 있다.

하지만 더 따져보면 몽롱효과의 발생에 관여하는 것이 묘사의 상세함만은 아니다. 위의 문장에 동원된 요소들을 분해해보면: “이틀 전 동지 때는 영하 17도 3부까지 추웠다” “내일은 크리스마스란다” “오늘은 날씨가 풀려 아침엔 고드름도 녹아내렸다” “진고개 어구는 한나절 질척거리더니 저녁엔 뽕송뽕송해졌다” —이렇게 적어도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각각의 요소들 자체가 특별히 세밀하게 묘사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소설 중에는 당연히 이보다 훨씬 더 상세한 묘사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그렇다면 염상섭 소설문장의 독특한 불투명은 어떻게 설명될 수 있을까.

우선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은 위의 예문에서처럼 상이한 요소들이 한 문장 안에 잡다하게 군거(群居)하고 있어 인상의 분산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더구나 각각의 네 요소들은 소설의 도입부에 위치해 있어, 저마다 앞으로 전개될 사건을 암시하거나 배경이 될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간단히 말하면 단일한 초점의 부재가 독자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사물을 관찰하는 주체적 시선의 모호성에서 유래한다고 볼 터인데, 이것은 단순히 문체의 문제를 넘어서는, 염상섭 문학의 근본적 성격에 관련된 문제일 것이다.

(3) 내가 읽어본 한에서 염상섭 소설의 화자인물 내지 시점인물이 갖는 공통점은 근본적으로 그들이 회의주의자들이라는 데 있다. 회의주의라는 용어가 적절치 않다면 삶의 순간들마다 거듭되는 입장선택의 보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말은 소설 주인공들이 실제로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다. 당연히 그들도 보통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한다. 다만 그들은 말과 행동 이전에 혹은 그와 동시에 끊임없이 자신에 대해 회의하고 변명하고 반성하고 또 의문을 던진다.

하지만 작가 본인이 철학적 회의주의자로 일관했던 것은 아니다. 생애 전체를 돌아보면 염상섭은 생활과 이념, 작품과 세계관의 어떤 일치를 추구했던 완벽주의자가 아니다. 그는 평생 동안 일정한 규모의 내적 균열을 지니고 살았던 것으로 추측된다. 「문학소년 시대의 회상」이란 글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회고한 적이 있다.

신문학에 있어서는 이 시대 사람들이 개척자의 소임을 맡는 수밖에 없었으니까 불가피한 일이라고 하겠지마는, 자국(自國)의 고유한 문학 속에서 자라나지 못하고 전연 문화적 혹은 문학적 이민(移民)으로 나가서 외국문화·타방(他邦)문학 속에서 성장하여 가지고 돌아와서 자기 문학을 세운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요 불명예하기도 한 일이다.

이 글이 언제 씌어졌는지는 알 수 없으나, 양주동(梁柱東, 1903~77) 편 『민족문화독본』(文研社 1955)에 실려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염상섭은 불과 15세의 나이에 일본에 건너갔고, 그곳에서 23세까지 체류하면서 중등학교와 대학과정을 이수했으며, 주로 일본작가들 작품의 독서를 통해 문학에 입문했다. 그런 까닭에 그는 동시대 문인들 가운데 가장 일본어 구사에 능숙했다고 한다. 그런데 위의 진술로 보면 그의 내면에는 그런 사실이 오히려 하나의 트라우마로 남아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자국의 고유한 문학 속에서 자라나지 못한’ 자의 문학적 이주민의식 같은 것

이 그의 무의식을 끊임없이 압박하고 있었던 것이다. 고유문화에 대한 존중의 의무감과 학습과정을 통해 획득한 외래문화는 그의 내부에서 오래도록 균열과 갈등을 일으키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바로 이 점을 귀향부터 출국까지의 기행소설의 형식 속에서 문제 삼은 작품이 『만세전』이다. 그리고 그 균열을 장편소설이라는 더 본격적인 규모에서 파헤친 작품이 『삼대』라고 할 수 있다. 이 작품에서는 균열이 한편으로는 봉건지주인 할아버지 조의관과 타락한 개화신사인 아버지 조상훈을 거쳐 양심적 지식인 조덕기에 이르는 세대 간의 갈등으로 표출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청년 부르주아 조덕기와 청년 맑스주의자 김병화의 대립으로 나타난다. 이런 점이 『삼대』를 당대의 사회변화와 이념분열을 포괄적으로 그려낸 리얼리즘의 소산으로 평가하게 만들었을 것이다. 그런데 소설의 시점인물 덕기는 자신의 입장과 장래의 거취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무산운동에 대하여 무관심으로 냉담히 방관만 할 수 없고, 그렇다고 체일선에 나서서 싸울 성격도 아니요 처지도 아니니까, 차라리 일 간호줄 격으로 변호사나 되어서 뒷일이나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었다. 덮어놓고 크게 되겠다는 공상도 가지고 있지 않으나, 책상물림의 뒷방 서방님으로 일생을 마치기도 싫었다. 제 분수대로는 무어나 하고 싶었다.

하지만 신경향파 문학이 등장하고 카프가 결성되던 1920년대 중반 염상섭은 기성 보수문단의 대표논객으로 활약한 바 있었다. 그 우파문인 염상섭과 무산운동의 동반자가 될 것을 자임하는 1931년의 조덕기는 동일한 인격체인가 아닌가. 물론 그럼에도 『삼대』의 작가가 사상적으로 좌경한 것이 아님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그러나 이때의 그가 5년 전의 자신과 이념적 동일인이 아님도 분명하다. 이런 문맥에서 살펴볼 때 그가 ‘문학적 고자’의 굴욕을 감수하고 만주로 이주한 데는 카프해산으로 표현된 파쇼체제의 강압도 한몫 했을 가능성이 있다. 즉, 그는 좌파이념에 동조하지 않은 것 못지않게 극우체제에 순종하는 것도 거부했던 것이다. 그런 점에서 그는 현진건·이태준·박태원·김동리·황순원 등과 더불어 넓은 의미의 보수진영에 속하면서도 그들과 함께 친일의 오류를 범하지 않은 작가군에 속한다 할 것이다.

(4) 염상섭은 『삼대』 연재를 시작하기에 앞서 “새로운 뜻을 뼈로 삼고 조선의 현실사회의 움직이는 모양을 피로 하고 중산계급의 살림과 그들의 생각을 살로 붙여서 그리려는 것”(조선일보 1930.12.27)이라고 작의(作意)를 밝히고 있다. 그가 말하는 ‘새로운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가 그려낸 ‘조선 현실사회의 움직임’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는 결국 작품을 다시 읽을 필요로 환원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다. 편법 삼아 단편소설 한 편과 그 작품을 둘러싼 비평적 논란을 검토함으로써 염상섭의 문학적 사유가 지나간 경로의 한 단면을 살펴보겠다.

“상섭은 당시에 비평가로서 자임하고 있었지, ...소설가로 출세할 자기를 예상치 않았기에...”(김동인, 조선근대소설고, 1929)라고 김동인은 염상섭에 관해 회고한 적이 있는데, 김동인이 여기서 말한 ‘당시’란 염상섭이 소설가로 등장하기 이전을 가리킨다. 이때 두 사람은 김환(金煥)이란 분의 소설 「자연의 자각」을 둘러싸고 비평가의 역할에 관해 잠깐 논쟁을 벌인 바 있었다. 염상섭이 비

평가를 “범죄를 탐구하는 재판관” 같이 군림하는 존재로 본 데 대해 김동인은 “활동사진의 변사”처럼 작품의 해설자가 비평가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논쟁 직후 염상섭은 「표본실의 청개구리」(1921) 발표로 김동인에게 소설계의 새로운 ‘강적’이 출현했음을 알렸고, 그리고 나서도 소설로 완전히 전향한 것이 아니라 활발하게 평론을 집필했다. 이른바 신경향파의 전성기가 도래한 뒤에도 염상섭은 거의 유일하게 보수 기성문단을 대변하는 비평가로 활약한 것이다.

예컨대 그는 카프가 결성되고 평단의 중심이 김팔봉·박영희 등에게로 옮겨간 시기에도 「계급문학을 논하여 소위 신경향파에 여(與)함」(조선일보 1926.1.22~2.4) 같은 도발적인 제목의 논설을 발표했다. 물론 반대측의 즉각적인 반론이 나왔다. 염상섭의 논문연재가 미처 끝나기도 전에 박영희는 「신흥예술의 이론적 근거를 논하여 염상섭 군의 무지를 박(駁)함」(조선일보 1926.2.3~2.19)을 연재하기 시작한 것이다. 논쟁의 내용 여하를 떠나 당시 젊은 문인들이 얼마나 뜨거운 열의에 휩싸여 있었는지 짐작케 하는 일화이다.

이 시기에 염상섭과 박영희가 주고받은 논전은 아마 우리 근대비평사의 빠트릴 수 없는 한 페이지에 속할 것이다. 그런데 내가 흥미를 가진 것은 박영희가 염상섭을 반박하면서 터무니없이 과격한 용어와 노골적인 인신공격을 퍼붓는 중에도 작품의 예를 들어 자신의 논지를 정당화하려고 했던 점이다. 오늘날 읽기에는 설익은 관념들이 줄줄이 펼쳐진 ‘이론’의 대목보다 염상섭의 단편 「윤전기」(1925) 분석을 통해 구체적 논증을 시도한 ‘비평’의 대목이 내게 유일하게 살아 있는 부분으로 다가온다. 「윤전기」 자체는 실상 소품에 불과하지만, 이후에도 이 작품을 중심으로 이론적 쟁점들이 교차했기에 비평사적 의미를 얻게 되었다. 이 점을 차례로 점검해보자.

「윤전기」의 구성은 아주 단순하다. 신문사는 경영난으로 두세 달 넘게 급료를 지급하지 못했고, 견디다 못한 노동자들은 태업 중이다. 하지만 신문사에는 경영주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분명하진 않지만, 사원회의에서 선출된 위원들이 경영을 공동으로 책임지고 있는데, 편집국의 A가 야간관리를 맡고 있고 다른 편집국원은 밤 10시까지 돈을 구해 돌아오기로 약속하고 출타중이다. 공무국 직원들은 일손을 놓은 채 불만을 터뜨리며 A에게 항의한다. 하지만 A도 형편이 나은 사람이 아니다. 그도 “장근 녀 달 동안에 단돈 일원도 들여간 일이 없고” “사흘 전에 나올 때에 쌀이 떨어졌다던 말”을 들은 처지인 것이다. 그러면서도 A로서는 신문발행을 포기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다음 대목에 개진된 그의 생각은 아마 작품의 핵심에 관련되어 있을 것이다.

신문이 아무리 중하여도 먹어야 하지! 지당한 말이다. 그러나 굶고라도 신문을 죽여서는 아니 되겠다는 것은 허영심에서 나온 말인가? 야심인가? 달관인가 봉공심인가? 훌륭한 영혼에서 나온 의지의 활동이라 할까? 누구에게 물어볼까? 예수는 무어라고 하였나? 카알 맑스는 무어라구 하였누? 아니 세상에서는 무어라구들 하는구?.....하지만 신념만은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고 모든 것을 포화할 수 있는 것이다!(조선문단 1925.10, p.704)

이렇게 편집국 간부와 공무국 노동자 간에 큰소리가 오가다가 마지막 순간에 인천 지국에서 돈이 도착하고, 그리하여 모든 것은 화해로 끝난다.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치며 거칠게 항의하던 공원(덕삼이)은 눈물을 글썽이며 A에게 용서를 빌고, A도 “우리의 지금 하는 일이 노자관계(勞資關係)로 싸우는 게 아니라고 그렇게 말을 하여도 끝끝내 그 야단들을 하더니...”하며 덕삼이의 손을

잡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박영희는 「윤전기」를 “부르주아의 총복인 A와 공장 사람들”이 임금을 둘러싸고 투쟁하는 과정을 그린 작품이라고 보고 혹독하게 비판하고 있다. 그는 A를 자본주와 사(社)를 대표한 존재라고 지적하며, A가 지극히 오만한 태도로 노동자를 조소하고 있다고 비난한다. ‘노자관계’로 싸우는 게 아니라는 A의 말은 교활한 속임수일 뿐이다. 요컨대 자본가와 노동자의 싸움에서 A는 자본가의 앞잡이며, A의 눈으로 신문사 태업사태를 그린 작품으로서의 「윤전기」는 전형적인 부르주아 문학인 것이다.(조선일보 1926.2.16~17)

그러나 이것은 좌파적 도식에 의한 과잉해석이다. 연보에 따르면 염상섭은 1920년 진학문(秦學文, 1890~1948)의 추천으로 언론계에 입문한 이후 주간지 동명(東明) 편집주간(1923), 시대일보 사회부장(1925), 조선일보 학예부장(1929) 등을 역임했다. 여러 언론사를 전전한 셈인데, 그때마다 그가 경험한 것은 신문사의 만성적인 경영난이었다. 「윤전기」를 집필하던 1925년 9월 염상섭은 시대일보에 근무하고 있었는데, 이 신문도 극심한 경영난에 시달리며 제호와 사장이 몇 차례 바뀐 끝에 1937년 11월 폐간되었다. 그러니까 「윤전기」는 시대일보·조선일보 등 식민지 언론기관들이 처한 열악한 경제상황의 문학적 반영으로서, 단순히 자본가와 노동자 간의 계급적 모순이 작품에 그려지고 있다고 보는 것은 단선적인 판단이다.

알다시피 박영희는 1934년 자신의 계급적 입장을 버렸고 1940년에는 「국민문학의 건설」 노선으로 투향한 바 있다. 그러나 박영희는 그런 굴곡을 겪고 난 뒤에 집필한 『현대조선문학사』(1948)에서도 「윤전기」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는 작품의 스토리를 개관한 다음 이렇게 결론짓는다: “이리하여 프로문학에서 중요한 내용으로 되어 있는 노동자와 자본가와의 투쟁에 대하여 민족적으로 협조 일치하여야 할 것을 암시하는 한편 프롤레타리아운동의 공식적인 투쟁을 풍자하였다.”(사상계 1959.2)

내가 보기에 박영희와 같은 진영에 속해 있으면서도 박영희보다 더 진전된 미학적 사고를 전개한 비평가는 김팔봉이다. 그의 논문 「변증적 사실주의」(동아일보 1929.2.25~3.7)는 ‘양식문제’에 대한 초고’라는 부제가 말해주듯이 당시 좌파비평의 혼란 병폐인 유물론적 도식의 기계적 적용에서 한걸음 나아가 문학예술의 고유한 형식원리에 대해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고민을 구체적인 작품분석을 통해 이론화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지지한 계급과 양립할 수 없는 태생적 한계를 내면에 지니고 있었고, 결국 그 한계를 넘어서지 못한 채 파쇼체제에 굴복하고 말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카프 초기를 대표하는 가장 균형 잡힌 비평가였다. 「윤전기」의 공과를 평가함에 있어서도 그는 다음과 같이 미학과 사회학의 적절한 결합을 시도한다.

작자는 이 작품에 있어서 어디까지든지 사실을 사실대로 A의 심리라든지 직공들의 분요(紛擾)를 묘사하려 하였다. 이 작자의 태도는 리얼리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결(작품의 결말=인용자)은 노자협조의 감격에 눈물짓는 센터멘털한 장면으로 끝을 맺어버렸다. 이 실로 무슨 까닭인가? (...) 현재의 A의 처지는 준(準) 경영자다. (...) 그 역시 그가 종사하는 신문사에서 돈을 뜯어다 쓰지 않고는 생활할 수 없는 정도에 있는 사람인 것은 사실이다. 그의 이러한 중간적 처지는 그로 하여금 노자협조로써 문제를 해결케 하였다. 실로 이 점에서 작자의 소부르적 편견은 정체를 노현(露現)하지 않고서는 못 견디게 되었다.(「변증적 사실주의」, 『김팔봉문학전집』 I,

작품의 성과와 작자의 계급적 본질에 관한 대단히 날카로운 분석이다. 그러나 김팔봉의 이 해석으로도 A가 신문사를 살리고자 애쓴 이유가 온전히 밝혀졌다고는 할 수는 없다. 앞의 인용문에서 A가 “허영심에서 나온 말인가? 야심인가? 달관인가 봉공심인가?”라고 자문했던 것의 정체, 즉 “모든 것을 초월하고 모든 것을 포화(포괄)할 수 있는 신념”의 내용은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 있는 것이다.

8·15 이후 염상섭은 단편 「첫걸음」(1946)을 「해방의 아들」로 개제하고 그 고친 제목 아래 「영덩이에 남은 발자국」(1948) 「난 어머니」(1925) 「전화」(1925) 「조그만 일」(1926) 「윤전기」 등을 함께 묶어 단편집으로 간행했다.(금릉도서주식회사 1949.2) 그런데 문제는 이 단편집에 수록된 「윤전기」가 『조선문단』(1925.10) 발표작 그대로가 아니고 상당한 수준에서 개작된 것이며, 이후 대부분의 염상섭선집과 염상섭 평론들이 이 개작을 근거로 삼고 있다는 점이다. 일찍이 이재선(李在銑) 교수는 『만세전』이 일제 식민당국의 검열과 해방후 재출판을 거치는 동안 여러 차례 개작되었음을 상세히 규명하여 적잖은 과문을 일으킨 바 있고(「일제의 검열과 〈만세전〉의 개작」, 문학사상 1979.11), 『삼대』 역시 해방 이후 만만찮게 수정이 가해졌음이 드러났는데(1960년대 민중서관 판 전집에서 내가 읽은 『삼대』 『만세전』도 물론 해방 후의 개작이었다), 「윤전기」에도 그만큼 개작이 가해진 것이다. 개작의 전모를 검토하는 것은 또 다른 과제이지만, 앞의 인용문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제시하는 것만으로도 그 일단을 짐작할 수는 있다고 믿어진다.

신문이 아무리 중하여도 먹어야 하겠지마는, 굶고라도 신문을 죽여서 안 되겠다는 것은 허영심도 야심도 아니다. 누구고 간에 다시는 총독부의 허가를 얻을 가망이 없는, 그 발행권(發行權)의 취소가 무서운 까닭이다. 적당한 경영자가 나서기까지 발행권을 유지하는 것이, 민족과 사회에 대한 의무라고 믿기 때문인 것이다. 일반 사원은 거기까지 생각이 못 미치는 것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해방의 아들』 1949, p.191)

비로소 작가는 “굶어서라도 신문을 지켜야 하는” 까닭이 총독부의 신문발행 허가권에 대한 저항의 의무 때문이라고 명시한 셈이다. 그리고 생계에 목을 맨 공무원 직원들이 거기까지 생각이 못 미친 것은 부득이한 일이라고 말한다. 일제 식민지통치 아래 민족주의와 계급주의가 시대정신의 내용을 점령하기 위해 경쟁하는 이념적 교차로에서 염상섭은 민족노선을 천명한 셈이다.

그러나 염상섭 문학이념의 전개를 추적하는 평론가에게는 한 가지 일거리가 더 남는다. 위의 인용들에서 보듯이 “굶고라도 신문을 죽여서는 안 되겠다는 것”은 일관되지만, 1925년판에서는 그것을 “허영심에서 나온 말인가? 야심인가? 달관인가 봉공심인가? 훌륭한 영혼에서 나온 의지의 활동이라 할까? 누구에게 물어볼까?”라고 시점인물 A의 지적 방향으로 연결시키는 데 비해 1949년판에서는 “민족과 사회에 대한 의무”로까지 격상시키기 때문이다. 요컨대 단편 「윤전기」에만 의거해서 염상섭이 언제 중도적 -김팔봉의 개념으로서는 소(小)부르주아적- 민족노선에 도달했는지 판단하려 할 경우 개작의 문제를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5) 알려진 대로 염상섭은 8·15해방을 만주 단둥(당시의 안동)에서 맞았다. 그보다 먼저 1937년 언론계 선배 진학문의 주선으로 만선일보(滿鮮日報) 편집국장이 되어 2년쯤 재직하다가 단둥으로 이주했다. 알다시피 만선일보는 괴뢰국 만주에서 조선인을 상대로 발행된 친일성향의 신문인데, 그 신문과 염상섭의 관계는 좀더 검토를 요한다. 아무튼 단둥에서 잠시 거류민단 부회장 역할을 하다가 초겨울쯤 압록강을 건너 신의주로 왔고, 이듬해 늦봄에는 다시 38선을 넘어 서울로 내려왔다. 꼭 10년 만의 귀향이었다. 우리의 관심사는 물론 일본의 패망, 미·소 양군의 한반도 분할점령, 그리고 사상적 분열과 정치적 격동의 시대를 염상섭이 어떤 정신적 좌표에 의지하여 살아냈던가 하는 것이다.

이것은 쉽지도 않고 단순치도 않은 문제이다. 우선 한 가지, 해방 시기 염상섭의 입장을 보여주는 하나의 단서는 그가 서울귀환 녀 달쯤 뒤인 1946년 10월 가톨릭계 경향신문 창간에 간부로 참여했다는 사실이다. 시인 정지용이 주간이고 그가 편집국장이었다. 10월 6일 창간호에는 사장 양기섭(梁基涉, 1905~1982) 신부의 공정보도를 천명하는 창간사와 경제평론가 배성룡(裴成龍, 1896~1964)의 논설문 「좌우합작의 전망」 및 이승만과 여운형의 축필(祝筆)이 1면을 장식하고 있어, 좌우익이 격렬하게 대립하던 시기에 이 신문이 어떤 노선을 지향했는지 짐작케 한다. 참고 삼아 1947년 조선사정협회가 발행한 〈보이스 오브 코리아〉 11월호를 보면 중간노선 경향신문의 발행부수가 6만 2천, 극우 동아일보가 4만 3천, 우익 조선일보가 2만 5천이라 하니, 거의 동아-조선을 합친 부수에 육박한다.

그런데 염상섭과 정지용은 1947년 8월 2일자로 경향신문을 떠난다. 정지용 시인은 원래 언론 경력이 없어 체질적으로 신문사 주간이 맞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염상섭은 언론계의 베테란이다. 뿐만 아니라 그는 1948년 1월 1일부터 자유신문에 장편소설 『효풍』을 연재하기 시작했고, 그와 더불어 신민일보 창간에 적극 참여하여 다시 언론계로 돌아왔다. 그런데 이 두 신문은 모두 경향보다 조금 더 좌파 내지 남북합작파에 가까웠고, 특히 신민일보는 단독정부 수립 반대운동에 앞장선 김구와의 인터뷰를 크게 실어 이승만과 미군정의 심기를 건드린 바 있었다. 그렇다면 1948년은 염상섭의 생애에 있어 예외적일 만큼 정치적 열정이 뜨거웠던 해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좌파로 전향했던 것은 아니다. 이 시기의 염상섭을 권영민 교수는 ‘중간파’로 규정했고, (『염상섭전집』 제10권, 해설, 민음사 1987) 김재용 교수는 1930년 전후의 신간회운동과 해방시기의 남북협상운동을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간에 이룩된 민족통합노선의 구현으로 보고 그 노선에 적극 호응한 염상섭의 문학적 성과로서 『사랑과 죄』 『삼대』 및 『효풍』을 분석한 바 있다. (『염상섭의 민족의식』, 1998) 나는 대체로 이런 견해에 찬성한다. 하지만 중간파란 말은 어감이 좋지 않다. 회색분자 또는 기회주의자를 연상시키기 때문이다. 신간회운동과 남북합작운동은 단순히 좌와 우의 중간 또는 양자 간의 절충을 추구했다기보다 양극단의 비현실적 편향을 넘어서 민족의 자주적 통합을 추구한 노선이었다. 여운형·안재홍·김규식·조소앙 및 말년의 김구 등을 묶어 ‘중도파’라고 부른 것도 비슷한 취지일 것이다. (윤민재, 『중도파의 민족주의운동과 분단국가』, 서울대출판부 2004) 생각건대 이 무렵 염상섭은 정치적으로 중도적 민족통합노선을 지지하는 입장이었던 것이 분명하다.

(6) 1948년은 염상섭이 소설가로서도 빛나는 활약을 펼친 해이다. 앞에 언급한 장편 『효풍』의 연재 이외에도 「이합」 「그 초기」 「재회」 등 여러 편의 단편을 발표하여 50대에 접어든 중년의 왕성한 필력을 과시했다. 그러나 단지 작품의 발표양만 많아진 것이 아니다. 『만세전』과 『삼대』 시기를 제외하면 당대현실의 총체적 인식과 진실한 묘사라는 리얼리즘 본연의 요구에 비추어서도 1948년의 염상섭은 자신의 문학생애에 있어 가장 높은 수준에 이르러 있었던 것이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외세에 의한 국토의 분단, 일제 식민지잔재의 미청산, 민족 내부의 이념적 분열 그리고 귀환동포를 비롯한 서민들의 극심한 생활난은 해방 시기 우리 민족 앞에 놓인 가장 핵심적인 문제이자 최대의 극복과제였다. 당시 우리 문학은 어떤 방식으로든 이 문제와의 연관을 피할 수 없었다. 『효풍』도 그렇지만, 「이합」과 「재회」도 초기 분단문학의 중요한 업적이다. 이 연작단편을 간단히 살펴보자.

주인공 장한이는 해방 후 처가붙이가 있는 이북의 어느 군 소재지에 학교 선생으로 재직하고 있다. 그런데 아내는 부인회 간부가 되어 밤낮 밖으로 싸돌아다니고, 그래서 부부는 툭하면 싸운다. 장한이는 남녀평등도 좋고 혁명도 좋지만 가정에 책임을 지라 소리 지르고, 아내는 낡은 봉건사상을 버리라며 대든다. 결국 장한이는 아들을 데리고 아내 몰래 월남을 결행한다. 내려오는 도중에 우연히 친구이자 처남인 진호를 만나는데, 진호는 반대로 이북 사는 친척을 찾아가는 길이다.

“어디를 가면 별수 있나!”(장한 -인용자)

장한도 남도지방의 소란한 소문을 들어서 아는 터이다.

“결국 우리 같은 사람은 삼팔선 위어나 발을 붙이고 살지? 자네두 가 보게마는 서울은 별수 있겠는가?”(진호 -인용자)

“이북에를 간들 자네 따위 삼팔선 위에서나 살구 싶다는 위인이 별수 있을 줄 아나?”

남북으로 오고가는 사람이 서로 말리듯이 똑같은 소리를 하며 신평녕스러운 웃음을 마주 웃는다.

“자, 그러니 우리는 어디로 가야 옳단 말인가? 그래도 그동안에 좀 자리가 잡혔을 테지? 이남에서 듣는 말야 데마도 많을 거요 일일이 준신할 수 없지마는……”

“내 말이 그 말일세. 이북에 앉아서 듣는 말야 뉘 말이 옳은지 종잡을 수 없지만, 그래두 식량 사정만이라두 훨씬 낫다는데 자네만한 수단에 아무러면 되짚어오다니!”

“나 보기엔 이남으로 테가 메이게 기어드는 게 딱해 못 견디겠는데!”

두 청년은 남북에 대하여 역시 서로 똑같은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똑같은 불안과 의문을 품는 것이었다.

어떻게 보면 이 장면은 남북의 현실을 똑같이 비판하기 위해 기계적 중립의 시점을 억지로 설정한 듯한 느낌을 주기도 한다. 문학으로서는 분명 조작의 냄새가 난다. 그럼에도 당시의 남북현실을 오늘의 시점에서 돌아본다면 이 장면이 갖는 통렬한 리얼리티를 부인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소설은 이혼을 결심하고 월남했던 주인공이 얼마 후 처남을 따라 내려온 아내와 다시 결합하여 화해하는 것으로 싱겁게 끝난다. 이 결말은 작가 염상섭의 다음 행보, 즉 비근한 일상

속으로 함몰해가는 소시민적 자기망각의 여정을 예고한다고 할 것이다.

물론 그렇게 된 것을 작가의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 염상섭과 정지용을 비롯한 수많은 양심적 문인과 무고한 백성들이 국가보안법 시행(1948.12)에 따라 강제로 소위 국민보도연맹(1949.6)에 가입했고, 6·25전쟁의 발발과 더불어 소설가는 구차하게도 해군소령의 군복 안에서 구명(救命)에 성공했고 시인은 안타깝게도 이름 없는 전장에서 비명횡사의 운명을 맞았으니, 때로 역사는 개인들의 의지와 용기로 넘을 수 없는 비극을 연출하기도 한다. 더구나 염상섭처럼 늘 선택 앞에서 망설였던 비관적 회의주의자임에랴!

다행히도 그는 후일 병들고 지친 몸으로 4·19혁명을 목격하는 행운을 누린다. 1960년 8월 무더운 여름, 그는 단편집 『일대의 유업』(을유문화사 1960.9.20)을 내게 되었을 때 기쁜 마음으로 다음과 같이 〈머리말〉을 쓸 수 있었다. “새 정부의 수립을 전후하여 (이 책이) 풀려나오게 된 것도 시기의 우연한 일치이겠지만, 무슨 기연(奇緣)이나 있는 듯이 저절로 기꺼운 미소를 떠오르게 한다. 건국 후 12년간의 독재로부터 해방된 기쁨을 나의 작품들마저 함께 맞이하는 듯이 시원하기 짝이 없다.” 건강이 허락했다면 서문에서 토로한 이 ‘독재로부터 해방된 기쁨’은 그에게 세 번째의 문학적 전성기를 선사했을지 몰랐다. 하지만 『일대의 유업』은 생전에 간행된 그의 마지막 소설집이 되었다.